Financial Daily

meritz 메리츠증권

2026. 4. 30 (목)

금융 Analyst 조아해 like.cho@meritz.co.kr
RA 공건희 kunhee.kong@meritz.co.kr

News

은행권, 정책대출만 늘고 자체대출 뒷걸음..."1.5% 목표도 버겁다"

머니투데이 https://zrr.kr/B5gi3p

4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세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감소한 영향
부동산 시장 잠김 현상과 가계부채 규제의 여파로 대출수요 자체가 감소하며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1.5%를 비자발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

시장 금리 뛰는데…기업대출은 '역주행'

한국경제 https://zrr.kr/siPh3C

국내 예금은행의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신규취급 기준)는 평균 연4.14%로 2월대비 0.06%p 하락한 데 반해 가계대출 금리(연 4.51%)는 전월보다 0.06%p 상승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 과정에서 기업대출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 영향으로 분석되며 주요 은행이 기업대출을 계속 늘리고 있는 점을 감안 시 금리 역주행 현상 지속 전망

증시 눈치 보는 뭉칫돈, KB·신한에 둥지 틀었다

아이뉴스24 https://zrr.kr/HSR4fo

올해 1분기에 4대 은행의 저금리성예금(요구불예금과 MMDA 합산)이 23조원 증가했으며, 증가분의 89%가량은 MMDA와 같은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
증시 활황이 이어지면서 증권 계열사의 존재감이 큰 금융사 계열 은행으로 자금이 집중… 특히 국민·신한은행은 수시입출식 자금 증가로 조달 비용 방어에 유리한 고지에 오른 모습

제이알글로벌리츠 법정관리 신청…하나은행 1000억 정산금 '불똥'

이투데이 https://zrr.kr/nMFjFI

벨기에 자산발 유동성 위기를 넘지 못한 제이알글로벌리츠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환헤지 거래 상대 금융사로 손실 위험이 확산
지난해 말 기준 1년 이내 만기를 앞둔 하나은행과의 매도 선물환 규모는 3억1400만유로로, 환율 변동분까지 반영하면 실제 정산금은 1000억원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추산

키움·카뱅도 가세…퇴직연금 시장 판 커진다

한국경제 https://zrr.kr/ijJaSN

정부는 퇴직금을 국민연금과 같이 전문적인 운용기관에 맡겨 불리는 '퇴직연금 기금형 제도'를 연내 도입할 계획
키움증권은 금융위원회에 퇴직연금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 영업을 준비 중이며, 카카오뱅크도 사업에 진출해 종합금융플랫폼 사업자로 도약하겠다고 선언

'빚투' 연일 사상 최대…증권사 다시 신용융자 일시 중단

연합뉴스 https://zrr.kr/ZFf586

국내 증시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28일 기준 35조6천895억원으로, 지난 23일 역대 처음 35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다시 고점을 돌파
증권사들은 다시 신용 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있는 모습… NH투자·KB증권은 신용융자 한도를 일시 제한했으며, 한국투자증권은 30일부터 신용거래 신규 약정을 일시 중단

보험계약 2년 유지율 70% 넘어…"외국보단 여전히 낮아"

연합뉴스 https://zrr.kr/f1hSEV

지난해 기준 보험계약 유지율이 1년 87.9%, 2년 73.8%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0.3%p, 4.6%p씩 상승
금감원은 1~3년 유지율이 전년보다 높아졌으나 주요국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 실제 2년 유지율은 싱가포르 96.5%, 일본 90.9%, 대만 90.0%, 미국 89.4%

요양시설 종신보험 논란, 원수사·GA 책임 공방 확산

보험매일 https://zrr.kr/fCPwFo

최근 일부 장기 요양기관이 운영자금을 활용해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해지환급금을 개인적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보험 모집 구조 전반에 대한 책임 소재 논란
원수사들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계약자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 요인을 선별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계약 인수 이후 판매채널 중심으로 책임이 귀결되는 구조라는 지적도 제기

비자,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험…위파이와 협력

지디넷코리아 https://zrr.kr/FqYqqH

비자(VISA)가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 위파이(WeFi)와 온체인 금융 서비스 구축을 위해 협력 계획을 발표
기존 비자 결제망에 온체인 결제를 접목하는 것이 골자로, 초기에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에 초점을 맞추며, 향후 디지털자산 서비스로 확장해 온체인 은행 서비스로 고도화할 계획

"달러 장악 안돼"… EU블록체인협회 "유로 스테이블코인 이자지급 허용해야"

이데일리 https://zrr.kr/pLT5f4

유럽 지역의 블록체인 기업 이익단체가 유로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도 달러처럼 이자 보상을 허용해야만 달러 스테이블코인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주장
이 단체는 대부분의 대출 플랫폼과 디파이 프로토콜이 서클의 USDC와 테더의 USDT에 수익률을 제공하기 때문에, 두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디파이 유동성을 지배하고 있다고 지적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